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3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

# 지방권력 대거 교체... '5극3특 정책·6대 구조개혁' 탄력

與 승리 구도... 정부 국정동력 확보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개혁여건 마련 대전충남 통합 등 지방재편 가시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국민들은 집권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고, 기존 지방권력의 대거 교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도 이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등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중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인천·울산·

경남·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광주·제주 등 11곳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은 경북뿐이었다. 경합지는 대구·부산·전북·강원 등으로 집계됐다.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개혁 입법과 부동산 정책, 세제 등은 물론 금융·노동·연금·교육 정책 등에서 국정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입법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차지한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6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이번 선거의 구도는 이미 정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호남·제주·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5극3특 등 지역균형개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울경이 대표적이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경남은 민주당 승리, 부산은 민주당이 접전우세다. 만일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이 지역을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더 빨리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집권 1년 만에 해양수산부·HMM 부산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 역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을 맞춰 주택 공급 전략을 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등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자치시도의 경우 이 대통령이 '예산 폭탄'을 약속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주로 지방재정 및 세제 혜택 우대 정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등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지선 이후 2028년 4월까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지지층과 이해관계자 반발에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여당이 다수

를 차지하고, 지방정부까지 다수를 석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개선이 골자인 노동개혁, 공공 부문 효율화를 추진하는 공공개혁,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 등이 6대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편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방송3사의 의뢰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민주당 '전국 진격'... 국민의힘 '경북 수성' 개표 상황실 희비... 與 '박수' 野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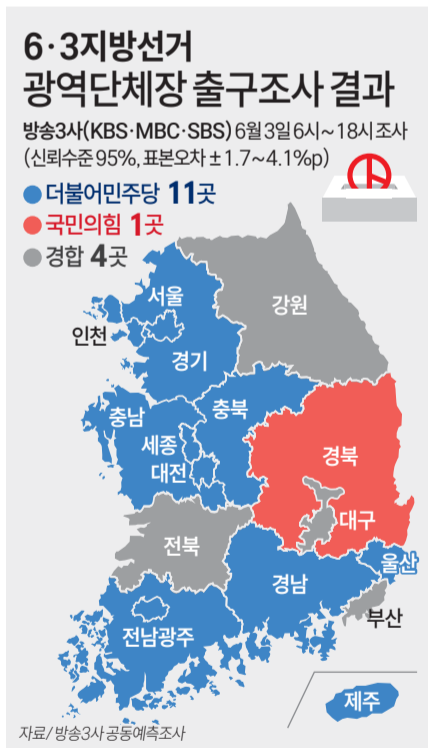
민주당, 수도권·충청 등 핵심지역 탈환 국민의힘, 사실상 참패... 지방권력 흔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 11곳,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했다. 나머지 4곳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3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60.6%으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2706만5412명이 투표하면서 오후 6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60.6%였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50.93%,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60.2%였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수도권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핵심 지역인 서울시장의 경우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6.0%로 9.2%포인트(p)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60.4%,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34.1%로 추 후보가 크게 앞섰다. 인천시장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53.7%, 현역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5.5%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앞서서 나온 울산시장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52.8%,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43.2%로 나타났다.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화가 김상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지사 역시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54.3%,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45.7%로 나타났다. 울산·경남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시·도지사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시·도지사였던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다. 대전시장은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55.9%,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42.9%로 나타났다. 세종시장은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64.3%,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3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지사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56.2%,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43.8%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78.6%,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12.8%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성곤 민주당 후보는 62.2%, 문성

유 국민의힘 후보는 34.9%인 것으로 나왔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곳은 경북지사도,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69.7%, 오종기 민주당 후보는 30.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지사에 3선 도전 중이다.

출구조사 결과 경합 지역은 강원·대구·부산·전북 등 총 4곳이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51.3%, 현역 지사였던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48.7%로 우 후보가 경합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0.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8.3%로 전 후보가 접전 우세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접전지역으로 꼽혔던 대구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9%,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9.1%로 초접전인 상황이다. 무소속 돌풍이 일어난 전북지사의 경우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8.5%, 현역이었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6.3%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14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0.3%로 세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부산 북갑도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1.6%로 초경합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민식 후보는 15.8%로 나타났다.

/서예진 기자



metro

국민의힘 "국민의 선택 겸허히 수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희비가 교차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합 4곳'이라는 결과에 잔잔한 박수 소리만 나왔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굳은 표정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이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인 오후 5시 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모였다. 정 대표는 자리에 착석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종일관 침착하게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카운트다운을 거쳐 오후 6시 정각이 된 직후 발표된 결과에 다들 당혹스러운 듯한 분위기였다. 환호성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접전지에 서울, 부산, 전북 등이 포함되서다.

박수 소리가 나온 것은 서울시장 접전 우세 결과가 나오면서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이지만 승리 목표를 세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시장, 경남지사 등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예측에도 환호했다.

다만 김용남 민주당 후보보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경기 평택을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측에는 다들 아쉬운 듯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긴장한 듯 양손을 매만졌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뉴스

상황실은 침묵과 함께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압승' 결과에 환호했던 4년 전 6·1 지방선거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인석 공동선대위원장,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 약 20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봤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 우세 11곳, 국민의힘 우세 1곳이라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과 발표 직후 K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인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40분 동안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봤나" 따로 입장 발표할 계획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예진 기자



metro